

이용섭 시장, 의회 '쪽문' 입장 '설왕설래'

개회시간 지나자 의장이 주출입구 문 닫으라 지시...옆문으로 입장 '춘극' 소통부재에 신경전...복지연구원장 청문회·원포인트 의회 연기 가능성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례적으로 시의회 본회의장을 '쪽문'으로 입장해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29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장의 주출입구가 잠겨 집행부 공무원이 드나드는 옆문으로 입장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김용집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 3분 전쯤 "정시에 개회하겠다"고 예고한 뒤 오전 10시가 되자 주출입문을 잠그라고 요구했다.

1분 정도 늦게 도착한 이 시장과 양 부시장, 실·국장 등 집행부 간부들은 잠긴 주출입문을 뒤로 한 채 옆문으로 입장했다.

통상 시장이 의장과 의장실에서 차담을 하고 동시에 입장하거나 미리 입장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날은 의장의 사전 예고에 이은, 주출입문 봉쇄(?)라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장도 의장을 보좌하지 않고 시장을 마중난 간 것이 목격돼 의원들의 입살에 올랐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이 시장과 김 의장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에 그 배경을 놓고 의회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이 시장에겐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광주시의 시의회와의 소통부재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두번이나 무산 끝에 내정된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시와 의회의 소통부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양측의 협약에 따라 시가 복지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해 청문회를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고 청문결과 보고는 5일 이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져야 임명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다음 시의회 회기는 9월1일이라, 시의 일정대로라면 원포인트 의회가 열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시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의장이 원포인트 의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의장이 시장에 대해 뿔이 단단히 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청문회 일정이나 원포인트 의회 개최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조금 늦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타이프한 일정때문이다"면서 "의회에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광주시의원은 "임시회 300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원포인트 의회로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시의 설명하고 조율하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 이날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가 성대히 열렸으며, 두 수장은 함께 참석했다.

박선미기자

동구, '지역문화 바로알기' 문화탐방·한옥 숙박 인기

광주 동구는 드림스타트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지역문화 바로알기' 문화탐방과 한옥 숙박체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가구별 희망하는 날짜에 맞춰 1~2가구씩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탐방은 충장동과 서남동 일대를 시작으로 흥학관터, 정율성 생가터, 춘목암(미문화원) 터 등 14개소를 약 3.8km를 60여 분에 걸쳐 탐방하게 된다.

아이들은 동구의 숨겨진 문화재와 역사적 장소를 문화해설사와 함께 동행하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몰랐던 향토자원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사업 '성과'

광주 서구는 '사회복지시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축·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보급 기관 13곳에서 월 평균 음식물쓰레기는 20t 가량 감량됐고 처리 비용은 월 320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는 지난해 금호중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7곳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또 대규모 식당 등 다량배출사업장 6곳에는 감량기 설치 후 50% 상당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남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49곳 현장 점검

광주 남구는 7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4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비 사용기준 준수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시설 운영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개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수증과 통장, 후원금 관리 등 회계 분야에 대한 점검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종사자 자격 적합성도 체크할 계획이다.

북구, 여름방학 별밤캠프 운영 "별 보며 과학 배워요"

광주 북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과 함께 '2021 가족과 함께 하는 여름방학 별밤캠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천문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캠프는 오는 24일과 다음달 21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천체관측 장비를 보유한 국립광주과학관 별빛전망대에서 밤하늘의 별을 직접 관측하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천체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족 티셔츠 만들기 ▲달 탐사 코딩 ▲우주 속 홀로그램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광산구, 예진표 색상 구별로 백신 오접종 예방

광주 광산구는 국내 도입 백신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예진표 색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4월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 환자·접종자 동선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접종 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국내 도입 백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오접종 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광산구는 백신 종류별 예진표 색상을 각기 달리 구별해 혹시 모를 혼선을 막고 있다.

광산구는 ▲원색(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노란색(얀센 백신) ▲파란색(화이자 백신) ▲분홍색(모더나 백신) 등으로 구별한 예진표를 위탁의료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임형백기자

한춘옥 도의원 "초등돌봄 '츄츄한 기회 사다리' 돼야"

"전남형 초등돌봄체계 구축...돌봄프로그램 질 제고해야"



초등학생 돌봄이 츄츄한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최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과 양육비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며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이 학교수업이 끝난 후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한다"며, "수요가 많은 도시는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한 돌봄사업을 늘리고, 아동이 좋아 돌봄 취약아동 이용기준을 채우지 못하

는 곳은 이용기준 자체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낙인감 없이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현실에서 초등돌봄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단순돌봄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의 질을 올리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공적 돌봄 체계 안에서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전남도의회에 입성한 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전남드래곤즈, 프로선수

통역관 공개 채용 나섰다

전남드래곤즈가 프로선수단 통역관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통역관 1명으로 담당 업무는 프로선수단 포르투갈어/영어 통역 및 외국인 선수 지원 업무이다.

채용 방식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1차 서류전형은 자유 양식으로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련 자격 기재 시에는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2차 면접전형은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포르투갈어 및 영어 능통자로 해외여행에 결정사유가 없는 자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프로스포츠단 통역 업무 경험자와 포르투갈어 외 제 2 외국어 사용 가능자는 우대 사항에 해당된다.

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13일 화요일까지이며,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15일 목요일에 면접전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월 세회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민이여! 건강보험을 잘 이용하세요.

한국연립진흥재단
Korea Union Pensio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현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런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